

名前:

몇 개월 전, 인터넷 상의 거짓 정보  
유포로 인해 한 유명 연예인이 자살을  
택한 사건이 있었다. 이와 같이, 진실성  
을 알 두 없이 유포되는 인터넷 정보  
는 문제가 되고 있다. 이와 같은 문제는  
인터넷 뉴스에서도 마찬가지다.  
인터넷은 체계에 글을 올린 사람이  
누구인지 쉽게 알지 못한다. 그리하여  
경찰이 나뉘 잡지 않는다면 별다른 진  
책감 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(사실 확인이  
되지 않은) 정보를 올리게 되는 것이  
다. 또한 이미 작성자나 단체들 사이에  
서도 서로 책임을 비추며 떠맡으려 하  
지 않는다.  
인터넷 뉴스도 마찬가지다. 신문사들의  
인터넷 홈페이지 기사를 제외한 인터넷  
기사들은, 대부분 아르바이트 등의 겸직  
되지 않은 기자를 채용한다. 또한 더  
많은 사람이 견회하기 위해 더 자극적  
이고 꾸밈이 있는 기사를 원한다. 이러

한 이유로 일명 '시민기자'들은 큰 진  
책감 없이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쓰게  
되는 것이다.  
또한, 물려진 기사는 순식간에 퍼지게  
된다. 유명인의 기사는 몇 분만에 몇  
백개의 기사가 세로 쓰여질 정도이다.  
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기사는 널리 퍼  
져 사감들 머릿속에 인식되고, 사실화  
되는 것이다.  
물론 인터넷 뉴스가 다 나쁘다는 것은  
아니다. 하지만 그것을 보고 분별할 줄  
알아야 한다는 것이다. 이와 같은 이유  
로 신문도 역시 아직은 필요하지 않나  
보다.